

화순군, 내년 국·도비 1천200억 확보...“백신·바이오 집중”

국비 948억·도비 252억원...지역 현안사업 중점 반영 구북규 군수 “만원주택 등 군민 행복 화순 만들기 주력”

화순군이 2025년 국·도비 1천200억원을 확보하며 백신·바이오와 생활SOC 등 군민 행복을 위한 핵심 사업에 나선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2025년 국비 예산 948억원과 도비 예산 25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개선, 테니스돔구장 조성,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등 135건의 사업에 반영됐으며, 긴축 재정 속에서도 백신·바이오 및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거 배정됐다.

백신·바이오 분야에서는 ▲국가백신 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99억원) ▲팹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개발(63억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2억원) 등 8건의 사업에 대해 총 321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화순이

백신 바이오산업 특구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화순 고인돌 공원 정원화 사업(21억원)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 명소화 사업(17억원) ▲추억의 능주 문화공간 조성(13억원) ▲다목적체육관 조성(6억원) 등 12건 사업에 대해 9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서태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40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35억원) ▲화순천 하천재해예방사업(20억원) ▲동구리 호수공원 경관개선(13억원) 등 115건 사업에 789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폐광지역 대체산업비(102억원) ▲폐광지역 토지매입비(100억



구북규(왼쪽) 화순군수가 지난 9월25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화순군 제공>



구북규(오른쪽) 화순군수가 지난 11월27일 화순 공업소 폐광복구 등 국비확보 협의를 위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원) ▲국립화순치유숲 운영 활성화(15억원) ▲백신안전기술센터 지원(59억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277억원은 내

년 초 추경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이번 예산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고,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응하며 철저한 전략을 추진했다. 구북

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원, 도의원의 협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구북규 군수는 “만원주택주택 등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청년 정책

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건의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겠다”며 “2025년 국·도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들쭉’

한승원문학학교서 축하 행사...김지사 등 시상식 생중계 시청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지내는 장흥에서 수상 축하 행사로 온 마을이 들쭉였다.

장흥군은 12일 “지난 10일 안양면 을산마을에 자리한 한승원문학학교에서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이날 축하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 문인협회,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행사는 플루트와 가야금 합주, 한강 작가 시 낭송(서시, 랜초), 마임, 국악 등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이날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모여 생중계로 방영

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강 작가가 수상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다함께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렇게 한승원문학학교에 모여 함께 축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남도는 전남문학박람회, 도립문학관 등 문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이 로드맵 속에서 문학 도시 장흥군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지난 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고,



장흥군이 지난 10일 한승원문학학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함께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안양면 을산마을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노벨문학도시로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

‘미식 관광지 고흥’ 대표 맛집 31곳 선정

암행·현장 평가 진행...내년 郡누리집서 소개

고흥군이 군을 대표할 ‘제3기 고흥맛집’ 31개소를 선정했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맛집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관광 지도와 관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제3기 고흥맛집’은 ▲고흥 8품·9미 취급 여부 및 고흥산 식재료 활용, 음식의 맛과 재료의 신선도 정도, 가격 만족도를 평가하는 음식 분야 ▲주방, 객석, 화장실 청결도를 평가하는 위생분야 ▲종사자 개인위생 및 친절한 고객 응대를 평가하는 서비스 분야 등 총 3개 항목에서 현장평가를 거쳐 고득점순으

로 선정됐다. 특히 현장 평가는 고흥맛집 심사위원단의 암행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대상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맛과 양을 평가했다.

‘제3기 고흥맛집’은 2025년 1월 고흥군 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을 찾는 관광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손님으로 생각하며, 양질의 맛집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더 많은 사람이 고흥의 맛을 즐기고 고흥이 미식 관광지로 널리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 /고흥=최봉환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국가 권력 민간인 부당 학살...“진상규명 최선 약속”

여수시는 12일 “전날 정기명 시장이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

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948년 10월의 그날,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

한 시대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깨진 거울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왜곡을 일삼아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

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 ‘섬진강 별빛 스카이’, 新관광랜드마크 탄생

망덕산-배알도 898m 집와이어·모노레일...20일 정식 개장

광양시가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898m 길이의 집와이어를 개장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 박경미·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민과 관광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별빛 스카이’와 모노레일 개장식을 개최했다. <사진> ‘섬진강 별빛 스카이’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898m 집와이어로 활강 4라인으로 구성됐으며 망덕포구 대표소에서 출발대까지 모노레일이 운행된다.

전 교육과 장비를 적용한 후 ‘섬진강 별빛 스카이’를 체험했다. 집와이어를 통해 섬진강과 배알도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짜릿한 속도감을 만끽한 이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광양시는 신규 관광시설 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무료 체험단 모집과 개장 할인, 탑승 후기 이벤트 등을 운영한다.

정인화 시장은 “섬진강 망덕포구는 생태환경, 역사, 인문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이라며 “운동주·정병욱 문화관, 캠핑 매카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민선 8기 공약실현 방안 모색 ‘박차’

공약 이행평가단 심의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

곡성군이 민선 8기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소통마루에서 조상래 곡성군수가 선거기간 제시한 43개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전 군민 버스 무료화 ▲군민 기본소득 지급 ▲교육, 문화 예술의 명품농촌 육성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 무상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추진 ▲농번기 마을공동육식 일수 확대 지원 ▲곡성이 정원하다 정원 프로젝트 ▲파크골프장 36호 조성 ▲바로폰 제도 시행 ▲곡성

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제 시행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역 활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곡성군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법적 제도적 준비 사항, 예상되는 문제점·대책 등에 대해 2편의 보고회를 개최하며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민선 8기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한 후 공약 이행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공약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상래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다”고 당부했다. /곡성=김영철 기자

장성군, 마을 이장단 주민 건강 살핀다

‘응급도우미’ 위촉...응급처치·119 신고 요령 안내

장성군은 12일 “지난 10일 장성읍 마을 이장단을 ‘우리 마을 응급도우미’로 위촉하고 단계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마을 응급도우미’는 주민 응급 상황 발생 시 마을 이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급차 도착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농촌·산간지역 주민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에는 주민들에게 응급처치방법과 119 신고 요령도 알려준다. 장성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리 마을 응급도우미’를 면 단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마을 이장단의 응급도우미 활동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다. 평소에는 주민들에게 응급처치방법과 119 신고 요령도 알려준다. 장성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리 마을 응급도우미’를 면 단위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마을 이장단의 응급도우미 활동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